

# 예비 귀농·귀촌인에 듣는다

### 무주군, '군수와의 대화' 진행... 지원정책 방향·지역민과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마련

황인홍 무주군수는 20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에서 예비 귀농·귀촌인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지역민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 안심면에 소재해 있는 체제형 가족실업농장 '입교생과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체험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18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무주군 관내 빈집 정보 공유와 활용 등에 대해 건의하고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희망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황인홍 군수는 "그동안 무주에서 생활하면서 느끼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귀담아 듣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일 예비 귀농·귀촌인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비 귀농·귀촌인 여러분이 바로 우리 무주군의 숨은 동력'이라며 "여러분의 시골살이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귀농·귀촌, 만족하는 귀농·귀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체제형 가족실업농장은 50㎡ 6세대, 33㎡ 4세대 규모에 생활동(10동)과 공동경작지, 시설하우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비 귀농·귀촌인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영농 기초이론 및 실습 등 관련 교육을 9개월간 진행한다. /김재훈 기자



무주군은 긴 장마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 및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들이 담당 마을에 일제 출장해 현장 상황을 직접 살피고 있다

## 장마로부터 농작물 안전 지킨다

### 무주군, 지도직 공무원 담당마을 일제출장 수해상황·병해충 방제 지도

무주군은 긴 장마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 및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들이 담당 마을에 일제 출장해 현장 상황을 직접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무풍면과 설천면을 비롯한 무주읍 내도리 지역을 찾은 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해당 마을의 농경지와 농업시설에 대한 비 피해 상황을 살피며 농작물 작황조사도 진행했다. 또 작목별 병해충 방제지도를 병행하며 농업인들에게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신상범 소장은 "사과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수시로 흙을 메워야하고 부러진 가지는 최소면적으로 자른 후 보호재를 도포해야 한다"며 "특히 탄저병과 갈색무늬병(갈반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벼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과 흑명나방, 이화명나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 그친 후 적용 약제를 살포하고 침수된 논은 신속히 물을 완전히 빼낸 후 새 물로 갈라대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고추나 깨, 배추 등 노지작물은 물이 고랑에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침수됐던 곳은 깨끗한 물을 이용해 흙 양분을 씻어낸 후 방제를 해야 역병과 탄저병, 담배나방 등의 병해충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시설작물의 경우는 일조 부족과 고온다습한 환경을 조심해야하며 비가 오기 전 배수로 정비와 비닐하우스 밀폐를 통해 빗물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재해 시 주민안전보험으로 혜택 받으세요"

### 주민안전보험 자동 가입·4개항목 추가 확대... 보험청구는 농협손해보험·읍면사무소 신청

장수군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20일 장수군에 따르면 주민안전보험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는 전국 어디서든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군은 올해 주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1개에서 15개로 4개의

항목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폭발화재붕괴·낙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상해 사망·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후유장애 △익사사망 △승기계사고 사망·후유장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등이다. 추가 보장 내역은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곤충, 뱀 등) 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애 △독액성 동

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지원 등이다. 보험청구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창을 안전재난과장은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고로 피해를 받은 분들은 필요서류를 갖춰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친환경 생태건강치유도시 조성... 국가예산 발굴 첫걸음

진안군은 20일 군청 강당에서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제정의 이해 및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도에 파견 근무 중인 황영준 국회의원관을 초빙해 국가재정의 올바른 이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황영준 국회의원관은 강의에서 국가예산 발굴 시 국가정책의 부합여부, 진안군 추진 당위성 시기의 적합성



진안군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부합하는 사업개발,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의 사전 숙지를 통한 발 빠른 대응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대한민국 제1의 친환경 생태건강치유도시를 조성하고, 미래 진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이 시급하다"며, "2025년 국가예산 발굴에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부합하는 사업개발,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의 사전 숙지를 통한 발 빠른 대응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대한민국 제1의 친환경 생태건강치유도시를 조성하고, 미래 진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이 시급하다"며, "2025년 국가예산 발굴에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립 자연휴양림 조성 착수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 군은 다양한 휴양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관내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부귀면 황금리 산90번지 국유림 39ha에 120여억원을 투자해 2028년도 개장을 목표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자연휴양림의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과 현황측량 등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여 자연휴양



림 조성계획을 전북도에 신청·승인 받을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오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관련 부서와 용역사가 상호 협력해 진안군민의 특색 있는 최선의 자연휴양림 설계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풍수해 감염병 유행 대비 집중 방역 실시

장수군보건이료원이 집중호우로 인해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모기, 쥐 등의 감염병 매개체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간염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안과 질환 등이 있다.

풍수해가 있는 경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해야 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아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가정 내 모기장 사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2023 홍삼축제 부스 참여자 교육 실시

진안군은 20일 오후 9월 22일~24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2023 진안홍삼축제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부스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스 참여자 등 70여명이 참가한 이날 교육에서는 부스 운영 준수사항, 문화누리카드, 친절·위생 등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부스 운영자들 또한 진안을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열정으로 끝까지 교육에 참여했다.

2023 진안홍삼축제는 국내 유일의 홍삼을 주제로 한 축제로 가족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이벤트로 구성된 관람객을 만날 예정이며 홍삼판매관, 수삼판매관, 로컬푸드관, 먹거리관 등 7개 주제의 부스가 운영 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운영자는 "진안군 대표 지역 축제인 만큼 내 자신이 진안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교육을 토대로 열심히 준비하여 깨끗하고 친절할 서비스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